

한국의 건강지표 조사사업의 고찰

- 결핵조사 -

이 은 규

결핵연구원

세계의 57억 인구 중에서 결핵에 감염된 인구수가 19억이나 되며 많은 나라에서 아직 결핵문제가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HIV 감염이 증가하면서 결핵에 대한 관심이 새로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핵관리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1965년 유병율이 5.1이던 것이 1990년에는 1.8%로 감소하였다. 현재 추정환자수는 대략 728,000 명이고 466,000(61.2%)명이 발견대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결핵감염을 및 유병을 실태조사는 1965년부터 매 5년 단위로 6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7차조사가 1995년에 수행되었다. 제 7차 결핵실태조사는 결핵의 주요 역학적 지표인 감염위험율의 감소추세와 유병율의 크기 및 추세를 파악하여 향후 장기적인 결핵관리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실시되었다.

조사기간은 1995년 2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었고 조사

대상은 전 인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203개 표본조사구를 설정한 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24,360가구의 81,200명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반은 인구반, 검진반, 세균검사반으로 나누었고, 조사일정에 따라 각 지역을 이동하면서 실시하였다.

인구반이 도착하여 인구조사, 개인조사표 작성, 수검통지서 전달, 그리고 최종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하루 뒤에 검진반이 도착하여 피부반응검사, 엑스선 촬영, 필름현상, 현지 필름 판독 등의 검사를 실시한다. 각 반은 지역당 3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검진반이 떠난 이틀뒤 세균반이 도착하여, 피부반응검사를 판독, BCG 반흔조사, 엑스선 검진결과를 통보, 가검물 채취, 그리고 과거치료력 등을 조사한다. 조사내용물은 결핵협회 시·도지부 및 검사소에 보내어져 도말/배양검사를 실시한다. 모든 조사결과는 본부로 보내어져 통계처리되며, 1995년 조사결과는 1996년 7월에 발표될 예정이다.